

광양시, 전남 최초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가족문화센터 운영·돌봄·다문화 지원 우수 친화적 공동체 만들기·사각지대 해소 주력

광양시는 2026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정책 분야에서 전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가족 돌봄, 다문화, 1인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가족정책의 핵심 거점인 가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207개 가족센터 중 7위의 사업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시설은 2019년부터 추진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89억원이 투입됐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다문화이주민+센터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가족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

가족문화센터는 2022년 기준 연간 11만3585명이 이용했으며, 최근 3년간 163개 프로그램이 총 7만2484회 운영됐다.

시는 공적 자원이 미치지 않는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광양형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65% 초과 1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88명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취약·위기가구 4188명을 대상으로 1만2698회회의 사례관리를 실시해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다문화 가구 증가에 대응



광양시는 2026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정책 분야에서 전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광양시청

해 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12명으로 구성된 '색동나무 인형극단'은 최근 3년간 355회 순회공연을 진행했으며, 4만1754명이 관람했다.

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 공동

육아나눔터 10개소를 운영하며, 연간 3만여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398명에게 약 2억3000

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방학 기간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1인 가구 등록제'도 운영 중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 최초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시민들이 가족 친화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광산구 동곡동의 한 농가에서 '국민과 같이 행복농촌봉사단' 5회차 활동으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협 광주본부, 행복농촌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광산구 동곡동 토마토 농가 찾아 현장지원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광산구 동곡동의 한 농가에서 '국민과 같이 행복농촌봉사단' 5회차 활동으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협 광주본부추진 중인 '국민과 같이 행복농촌봉사단'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철호 본부장을 비롯한 방농협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동곡농협 주관 아래 토마토

유인 집게 걸기 작업 등을 진행하며 영농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영농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선관위-호남대, 깨끗한 선거문화 확산 '맞손'

대학생 선거과정·홍보 참여 지원 업무 협력...협약 체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호남대학교와 공직선거의 안정적인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관위 위원회의실에서 호남대와 '대학생의 선거과정 및 홍보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선거 현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고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관위 위원회의실에서 호남대와 '대학생의 선거과정 및 홍보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 대상 투·개표 사무 등 선거관리 과정에 대학생 참여관장, 선거인력 모집 홍보 및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인재들이 선거의 핵심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 확산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학생들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여수-제주, 고향사랑으로 잇는 '섬·바다의 상생'

고향사랑기부제 증서 전달식 복지교류·섬박람회 홍보 협력

여수시는 최근 시청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부서 공무원 6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680만원 규모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지역 간 상생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수시와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번 교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복지정책 정보 공유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증서 전달식 이후 참석자들은 시청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응원'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대의 홍보 의지를 다졌다.

또 제주도 방문단은 1박2일 일정으로 여수에 머물며 생생종합사회복지관, 여수 시청소년해양교육원, 어르신문화체육센터 등 주요 복지시설을 방문해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교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복지정책 협력, 섬박람회 홍보로 이어지는 상생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광주영신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시설물 안전 강화와 환경 정비를 위한 전방위적인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YWCA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오월Y시민주포럼을 개최했다.

광주YWCA, 오월Y시민주포럼 개최

5·18 헌법전문 수록 성명 발표

광주YWCA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오월Y시민주포럼을 광주 YWCA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5·18 역사 왜곡의 현안과 대응'을 주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저자 이재의 작가의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박용준 역사 청소년자립지원금도 청소년 7명에게 전달됐다.

또 광주YWCA 활동가 50명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 후 시민캠페인으로 '5·18정신, 헌법으로 이어가다'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계승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YWCA 유동회관 정문 앞에서 11개의 전라·제주권역 YWCA와도 '5·18정신, 헌법으로 이어가다' 성명서를 발표,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여수시는 최근 시청 현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응원'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광주도시공사 노사, 아동보육시설 환경개선 광주영신원서 후원금 전달·재능기부 나눔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노사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아동보육시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광주영신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시설물 안전 강화와 환경 정비를 위한 전방위적인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기술 인프라를 지역사회의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전달하고자 기획한 노사 공동 프로젝트다.

단순한 기탁 형식을 탈피해 임직원들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진단하고 보수하는 실천적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자인 광주영신원은 41명의 아동과

35명의 종사자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노사 봉사단은 우기를 대비해 건물 옥상 취약부위 약 34㎡에 고성능 방수 페인트를 도포하는 시공을 완료했다. 거주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 조명을 철거하고,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실내의 파손된 콘크리트와 출입문 손잡이 등 사소한 지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 전반을 세검으로 바꾸며 전문 기술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땀 흘린 이번 활동은 갈등의 구도를 넘어 상생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지역사회로 환원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양동민 기자 yang00@